

거리두기 전면 해제 첫날, 광주 도심 일상 회복 ‘기지개’

입학 3년만에 첫 체육대회...운동장엔 웃음소리 가득
 식당엔 단체 예약 빗발... “위기 속 이제야 숨통 트여”

“3년 만의 체육대회 신나요!” “단체 예약이 늘고 있어 이제야 한숨 놓이네요.”

마스크 의무 착용을 제외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18일 광주 도심 곳곳은 활기를 띠었다. 지난 2년여 동안 에타게 기다린 일상 회복이 현실화되자 남녀노소 밝은 표정으로 거리를 거닐었다.

이날 오전 광주 남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는 입학 이후 3년 만에 첫 체육대회에 참여한 3학년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이들은 소풍·체육대회 등을 즐기지 못했고 잦은 비대면 원격 수업으로 같은 반 친구 얼굴조차 제대로 보지 못한 채 1·2학년을 보냈다.

입학 이후 첫 체육대회도 부모 참석 없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진행됐지만 학생들은 즐거움과 설렘을 숨기지 않았다.

한 학생은 “전날 엄마에게 운동복과 가벼운 운동화를 준비해 달라고 했다. 처음으로 3학년 전체가 운동장에 모여 체육대회를 하니 신나고 재미있다”고 들뜬 마음을 표현했다.

또 다른 학생은 “달리기에서 1등을 해 얼마

에게 자랑하겠다. 운동장에서 뛰어 노니가 즐겁고 또 체육대회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식당가도 조금씩 영업을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했다.

점심 무렵 동구 충장로 한 고깃집에도 손님 발길이 잇따랐다. 이날 잡힌 단체예약 2건 중 1건은 10명 이상 대규모였다.

동구 서석동의 한 중국음식점 좌석에도 공공기관·기업 임직원들로 가득 찼다. 15명 규모 상견례 단체예약도 접수됐다.

광산구 송정동의 한 대형 음식점에도 이날부터 10명 이상 대규모 예약문의 전화가 잇따랐다. 반나절 동안 10명 이상 예약 건만 4건을 넘기며 일상 회복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체감했다.

인근 한 떡갈비 전문음식점도 점심식사 손님 맞이에 바빴다. 당장 지난주보다 손님이 크게 늘지는 않았지만 전세버스 단위 관광객 손님이 늘어나는 등 호황을 맞을 것으로 종업원은 기대했다.

한 식당 업주는 “지난주부터 손님이 늘어났다. 오늘 당장 손님이 크게 늘지 않더라도 방역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첫날인 18일 오전 광주 남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입학 후 처음으로 운동장 체육대회를 하고 있다.

지침이 해제되면서 차차 경기가 활기를 띠기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히려 제때 아르바이트 인력을 구하지 못해 당분간 영업시간을 1시간 줄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구 치평동의 한 식당 업주는 “최근 모임 인원 제한이 6명, 10명으로 점차 늘어나면서 영업 이익도 확연히 늘고 있다. 확실히 매장 방

문 손님과 함께 저녁 식사 술자리도 늘면서 매출 증가 폭이 체감된다”며 “지난 2년 간 폐업 위기도 있었지만 이제야 좀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기대했다.

이날 광주 지역 경로당도 운영 재개를 앞두고 대대적인 방역 활동을 벌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0시를 기해 사적 모임

과 행사·집회 인원 제한을 모두 완화했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술집은 24시간 영업을 가능해졌다. 단 마스크는 현행대로 착용해야 한다.

종교시설과 일부 사업장에 보름간 운영 제한을 권고하는 첫 행정명령이 내려진 2020년 3월 22일 이후 757일, 약 2년1개월 만이다.

김재환기자

‘줄도산 위기’ 호남·제주 철콘업체들, 전국 200개 현장 섰다



광주서 긴급회의 개최...내일부터 대형현장 작업 중단 결의
 원청사 손실보존 방안 제시할 때까지 섰다

대형 건설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등으로 건물 뼈대를 세우는 골조공사 전문 업체들이 ‘줄도산 위기’를 이유로 오는 20일부터 공사 중단(섰다) 돌입을 결의해 공정 차질이 우려된다.

이같은 결의는 공사에 쓰이는 건설자재인 철재·목재·합판 가격이 35년 만에 최대치로 폭등한 가운데 인건비까지 덩달아 급상승해 일을 할수록 적자만 쌓이고 있는데 있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호남·제주 철콘업체들은 지난 15일 광주에서 회원사 대표 회의를 열고 오는 20일부터 현장 섰다

돌입과 오는 20일 광주시청 앞 집회를 결의했다.

호남·제주 연합회는 광주·전남·전북·제주 소재 업체 51개사로 구성된 단체다.

섰다에 돌입하는 공사 현장은 원청사 중 가장 규모가 큰 현대건설을 비롯해 삼성물산, DL이앤씨 등이 시공하는 전국 현장 200여 곳이다.

문제는 호남·제주연합회에 이어 전국철콘연합회도 섰다에 참여를 위해 오늘(18일) 회의를 열기로 해 결과에 따라 건설현장에 미치는 여파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경기·인천 철콘연합회 회원사(88개사)를 비롯해 대전·세종·충청 철콘연합회(9개사), 대구·경북 철콘연합회(19개사), 부산·울산·경남 철콘연합회 회원사(21개사)까지 전체 섰다 운에 참여할 경우 전국 건설현장 600여 곳이 멈춰서고 공기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철콘연합회의 집단행동은 현재 하도급 단가로는 폭등한 건설자재 가격과 인건비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파악된다.

전국철콘연합회가 조사한 자재비 인상 폭을 살펴보면, 지난해 상반기 대비(3~8월 계약분) 철물, 각재·합판 가격은 각각 50% 상승했다. 또 기타 잡자재도 40% 올랐다.

실제 철근의 원료가 되는 국제 고철 가격은 13년 만에 처음으로 t당 60만원 선을 넘어섰다. 현대제철 철근 기준 가격의 경우, 지난해 1월 t당 70만원이던 것이 현재 99만1000원으로

30만원 가량 올랐으며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인건비 인상률도 두드러진다. 형틀 재래식(15%), 알폼 시공(30%), 철근 시공(10%) 모두 두 자릿수 상승했다.

호남·제주 철콘연합회는 이번 섰다운은 원청사로부터 손실보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금여력이 부족한 철콘업체의 줄도산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손실보전 방안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호남·제주 철콘연합회 관계자는 “재료비와 인건비 인상폭이 평년 수준이라면 고통을 감당할 수 있지만 35년 만에 자재값이 최대치로 폭등하는 바람에 계약체결 전 단가로는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며 “원·하청 간 상생을 위해서라도 단가 조정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기동취재본부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네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집 좀 가게 응급차 좀 불러줘요”
“지갑 잃어버렸는데 좀 찾아줘요”

소방관은 비서가 아닙니다.

3년간 소방관의 사소한 생활민원성 출동 124만 9932건, 하루 평균 1,141회
119 본연의 임무는 응급구조입니다.

국민 정재홍·서관우·조윤영 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1 공익광고 공모전 수상작